



KIA 금주의 프로야구

롯데·현대 상대 원정길 (7위) (6위) 6연승 휘파람 불어볼까

"이젠 연승모드 외엔 답이 없다." 잠마 시즌에 접어들어 이번주(7월 3일~8일)가 KIA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팀 최근 마운드 급격한 붕괴

'호랑이' 희생 여부 최대 갈림길

한달여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KIA로선 올스타 브레이크(17~19일)를 2주일에 앞둔 시점에서 승패의 격차를 줄여가는 게 급선무다.

다행히 이번 주는 다소 희망적이다. 롯데(7위)와 현대(6위) 모두 선발 마운드가 붕괴되면서 팀 전력에 급격히 하락했다.

첫 상대인 롯데는 손민한 외엔 믿음직한 투수가 없다. 장원준, 이상목, 염종석은 5회를 넘기기 힘들 정도로 불안한 체구력을 노출하고 있다.

롯데는 투타가 4강에서 추락한 현대도 어긋난 선발 로테이션으로 팀 전력에 하락세를 몰아선 상황이다.

1선발 클라웨이는 6월 6일 한화전 이후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임시 휴업상태고, 4월말까지 평균자책점 1위(0.28)를 달렸던 2선발 장원삼 역시 '악몽'의 6월을 보냈다.

6경기에서 4패(평균자책점 8.68)로 부진했다. 여기에 5선발도 비어있다. 현대 마운드는 6월 한달간 평균자책점 5.

Table with 8 columns: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Rows include SK, 두산, 한화, LG, 삼성, 현대, 롯데, KIA.

8위로 경기당 평균 6점씩을 내줬다. 최근 10경기 성적도 3승 7패로 초라하기만 하다. 다만 6월 한달동안 10개의 홈런을 날린 브루마는 '경계대상'이다.

하지만 승리의 관건은 역시 스트라이크 존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진우의 부활과 팀 타선의 집중력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랜만에 씩름 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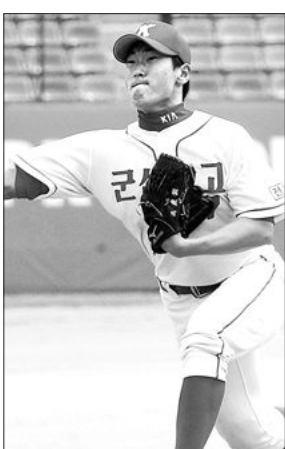
2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제44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고등부 단체전 준결승 증평군교정휘정(위)과 우신고 흥평원의 경기에서 정휘정이 안다리되기로 승리하고 있다.

팬 선정 올스타 또 좌절
日프로야구 이승엽 1루수 부문 3위로 밀려
한국 프로야구를 거친 선수 중 사상 첫 팬 선정 일본프로야구 올스타 출전을 눈앞에 뒀던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사천)이 아깝게 올해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태현 몸값 2억원...KIA 입단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2일 2008년 신인 1차 지명선수인 사이드암 투수 전태현(18·군산상고·사천)과 계약금 1억8천만원, 연봉 2천만원에 입단계약했다.

187cm, 85kg의 좋은 체격을 지닌 우완투수 전태현은 최고 시속 141km의 빠른 볼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며 제구력과 경기 운영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태현은 올해 9경기에 출전해 모두 58.1이닝을 던져 4승4패, 평균자책점 0.77, 탈삼진 56개를 기록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건물매매
토지매매
시외내송지

국민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건물
땅
주택
상업

대지부동산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무릎 상가주택

BM 公認仲介士事務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